

연극

청바지를 입은 파우스트

4월5일~

압구정동 실험극장 (02-515-7661~2)



실험극장이 '오늘의 명배
우시리즈'로 마련한
작품. 전면적 회의에 빠
진 지식인의 자기반성 이

란 괴테 원작의 주제를 충실히 형상화하면서
뮤지컬 요소를 첨가해 원작이 갖는 딱딱함에서
탈피했다. 70년대 학생운동과 운동권여학생
성고문 사건 등이 애뜻한 사랑이 이야기와 얹히면
서 90년대에 다시 읽어야 할 자화상으로 등장
한다. 이운택 극·연출.



공연

자, 우리손을 잡아

4월22, 23일 오후 5시

연세대학교 노천극장



8·15 해방 50주년을 기
념해 한국민족예술총연합
이 마련한 공연. 지난 50
년의 왜곡된 역사를 노래
와 극, 춤이 함께 어우러져 재조명한다. 북한에
서 보내온 가사에 작곡가 김호철씨가 곡을 붙
여 만든 노래 잡은 손 굳게 잡고 통일합시다
를 선보일 예정.



이 할머니들을 보자

방치된 종군위안부 역사... 관객에 다가오는 통증

김소영/영화평론가

할머니들은 빨래를 하고 김치거리를 다듬고, 한
끼의 식사를 준비한다.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
든 비둘기에게 곡식을 던지기도 한다. 그러나
때로는 핏빛으로 얼룩진 그림을 그리고, 매주 수요일이
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'나눔의 집'으로
들어온다.

'나눔의 집'에 함께 모여사는 이 6명의 할머니들은 모
두 고통스런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. 변영주 감독의 다큐
멘터리 <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2: 낮은 목소리>
는 조심스럽게 이들의 기억의 창고를 뒤적이다. 이제 '낮
은 목소리'로 할머니들이 웅얼거리기 시작하고, 카메라
는 어떠한 극적인
제스처도 시도하려
고 하지 않으면서
그들이 구전하는
개인적, 집단적 역
사를 담아나간다.

일제 강점기, 10
대 후반의 조선 소
녀들의 몸은 가장
상징적이면서 실제
적 의미에서 이중
의 식민지가 되었

다. 그들의 몸은 마치 그 당시 조선의 들판처럼 제국주의
자들이 강제로 점거하고 남획할 수 있는 땅에 지나지 않
았다.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소녀들은 정신대란 이름
으로 전쟁터에 끌려갔고, 군인들의 전투력을 고양시키기
위한 성적 배설구로 사용됐다. 많은 수의 여성들이 '피
빠는 집'이라고 불리던 위안소에서 성병과 수치심에 뒤
영겨 죽었고, 살아남은 몇 사람들은 이제 70이 넘은 노
구를 끌고 일본 대사관 앞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.

추운 겨울 할머니들이 대사관 앞 거리에서 일본의 배
상과 사과를 외치며 시위를 벌일 때, 그리고 차가운 구들
장 위에서 약값을 걱정하며 탄식할 때, 우리는 이제껏 종
군 위안부 문제가 '정복할 것이냐. 정복당할 것이냐'와
같은 국수주의적이며 수사학적인 차원에서만 거론되었
을 뿐 당사자들을 위한 아주 실제적 도움조차도 없었음
을 깨닫게 된다.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 다큐멘터리가 그
공간적 배경을 중국 우한으로 옮겼을 때 더욱 절실해진
다. 역사적 현장의 발견과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기

본적 요소 중의 하나가 가장 큰 빛을 발휘하고 있는 이
우한 부분에서 우리는 서울의 나눔의 집에도 올 수 없는
세명의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.

과거 일본 해군 병참기지 주변에서 거주하는 종군 위
안부 할머니들은 다큐멘터리팀이 도착하자 이제 조국으
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적지 않게
동요하면서 여태 기억하고 있는 조선말로 위안소에서의
일들을 털어놓는다. 여기서 연출자는 다큐멘터리스트로
서의 고뇌를 슬며시 화면으로 재현한다. 우리를 이제 조
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할머니들의 얼굴 다
음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캐럴이 울려퍼지는 명동거리를
위치시킴으로써 사건을 해석해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
자신의 입장을 성찰하고(과연 다큐멘터리 연출가는 그



들에게 무엇을 실
제적으로 제공할
수 있을 것인가?),
동시에 종군 위안
부 문제를 방관해
온 우리 관객들을
반성하게 한다. 이
다큐멘터리의 장
가운데 하나는 이
러한 성찰과 반성
을 할머니들의 얼
굴 위로 펼칠 지나

가는 표정의 적절한 클로즈업이나 편집 등의 영화 언어
를 이용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(이와는 반대로 텔레
비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내레이터가 이
모든 것을 '친절하게' 설명해준다). 특히 마지막 장면에
서 카메라는 한 할머니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데, 전쟁터
의 벽에 새겨진 역사적 혈흔처럼 주름살로 뒤덮인 그 몸
은 일제 강점기엔 제국주의자들의 성의 도구로 이용되었
고 해방 이후엔 민족으로부터 버려진 종군 위안부 여성
들의 상처를 암시적으로 환기시킨다. 물론 우리 모두가
눈물 지으며 극장을 떠나겠지만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
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.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
말로 알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영화를 보아야 할 것
이다.

이렇게 독립적으로 제작된 16mm 다큐멘터리가 일반
극장에서 상영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영화사의 이벤트인
만큼, 관객인 당신은 사실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는 셈이
된다. ㉠